



同窓會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재단법인 청관장학회

제 192 호

2017년 5월 10일

발행인 : 이 규 택

편집인 : 이 창 득

Home page :

www.snucaa.or.kr

E-mail :

snucaa@hanmail.net

(우)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1010호(충정로 3가, 피어리스 아파트) 전화 : (02)720-8116, 8120 FAX : (02)720-8117

제9회 청관대상 시상 및 2017년 정기총회 개최



▲ 제9회 청관대상 시상 및 2017년 정기총회 기념



▲ 제9회 청관대상 수상자 기념사진



▲ 2017년 동창회 임원진 신년인사회(2.16)

체덕지(體德智)와 사범정신으로 교육개혁운동

전 태 원 (체육 72)

전 서울대학교사범대학 학장

병신년(丙申年)인 지난해 9월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국정농단 사태가 정유년(丁酉年)인 새해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며 슬픔에 젖어 있다.

2017년 정유년은 '붉은 달'의 해이다. 역사적으로 비처분 때 정유년은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빠졌을 때 국민들이 앞장 서 일어나 국난 극복을 하였다.

하지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국가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를 지켜야 되는 국가 지도자,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조력자로서 모습을 드러냈다. 게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가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나라에 정의는 살아 있는가?

세상은 누구이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 갈 것인가?

세상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70여 년 간 초고속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며 세계 중심국가 중의 하나로 발전을 하였다.

세계인들은 한국의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류도 한때는 훈풍이 불면서 신바람이 나는 듯 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국가의 위기가 쓰나미처럼 일시에 몰려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사태에 절망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국난에 빠졌을 때에 지도자들보다 민초들이 나라를 지켜온 민족으로 우리 모두 다시금 정신을 차려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뭉치고 화합해서 다시 일어셔야 한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동안 한국은 앞만 보고 빨리, 빨리 달리면서 급속한 발전은 이룩했으나 여러 가지 사회적 병폐가 나타났다. 특히,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계 등 여러 분야에서 유착의 거미줄, 특권과 비리 등으로 판피아·법피아·교피아·정피아 등이 우리 사회에 너무 광범히 하게 널리 퍼져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금수저, 흙수저, 3포, 5포 세대, N포 세대 등 노력해도 희망 없는 사회라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 있고 좌파, 우파가 갈려서 서로 아귀다툼을 하니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이번 국정농단의 의혹의 중심에선 인물들 가운데는 서울대 출신 동문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할 법조인들이 많아 정말 부끄럽다. 일부 동문 인사들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대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려고 서울대 교수를 했나'라는 자괴감이 든다.

서울대 입학시절 불렀던 교가와 함께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돌려 관악을 보게 하라 구절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 온 것이 맞는지 회의를 느낀다. 서울대 홈페이지에 "서울대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선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또한 서울대 학생들이 뽑은 '제1회 명예의 전당' 추천 동문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다.

김 전 실장은 "선비로서 평생 명예를 먹고 살았다."고 회고록에 썼다고 전해지는데 한국의 선비와 선비정신을 알고나 한 말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선비는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서, 특히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인격체 또는 신분계층을 가리킨다.

우리는 청렴결백하고 지조를 중시하는 사람, 어떤 처지에서든 품위를 잃지 않는 고고한 정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늘 학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 선비라고 한다. 선비는 정치를 보좌할 때 선비다운 기개를 발휘하여, 권세와 지위의 위엄에도 굽히지 않고 올바른 도리가 무엇인지를 밝혀 바른길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집권자가 권력을 정의를 못하게 행사할 때 이를 견제하고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는 강직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또 충직한 지조를 지키기 위해 직언을 하다가 형벌을 받는 것도 선비는 사양하지 않는다. 선비가 학문으로 명망을 얻어 많은 학도들이 문하에 모여들면 선생으로 일컬어지게 된다. 선

생은 선비에게는 어떤 높은 벼슬의 작위보다 소중하게 여겨지는 최고의 영예로운 호칭으로 받아들여졌다.

공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군자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로 청년 시절의 여색, 장년기의 다툼과 함께 노년기의 탐욕을 들었다. 노년기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한만 남다 보니 명예와 의리는 사라지고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욕(老慾)이 때로 지나치면 노후(老醜·노년의 추함)가 된다.

당나라 시인 백거이는 풍유시 '불치사(不致仕)'에서 눈이 어두워져 공문서를 읽지 못하고 허리가 굽어도 명예와 이익을 탐하며 관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꾸짖었다.

옛날 우리 선비들이 갖추고자 했던 도덕을 중에 지지(知止)라는 것이 있었다.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그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노자의 《도덕경》 44장에 있는 지족불욕 지지불태(知足不辱 知止不殆)라는 구절이 그 출처이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만둘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이다. 권력과 지위를 누리던 사람들은 가장 적당한 시기를 살피서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요즈음 정년을 하고도 정치판을 어슬렁거리거나 낙하산을 타고 공기 업이나 대학총장을 꿈꾸는 올드보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이형기의 '낙하'라는 시와 채근담의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시기'가 그것이다.

謝事當謝於正盛之時 居身宜居於獨後之

일을 그만둘 때는 전성시기에 물러나고,
몸을 두는 때는 홀로 처진 곳에 둘 것이니라.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존경받는 어른이나 지도자가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나마 세계 대통령을 지냈었던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님이 대권의 꿈을 빨리 접으면서 노후를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되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기회에 대대적 시민의식개혁운동과 함께 국가대개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작업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무슨일이든지 어렵고 힘들지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위기 극복의 길은 우리 모두가 교육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의 우선순위는 지덕체(智德體)라기보다 체덕지(體德智)이다. 나라의 근본은 사람이고 교육은 건강하고(體), 바르고(德), 지혜로운(智)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말은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크의 교육론에서 인용했다. 그는 영국교육의 목적을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할 수 있는 신사양성에 두고 명예, 희생, 규율, 인내심, 금욕을 통하여 심신의 건강과 신사의 덕성 및 지성을 갖추도록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고교 교육의 실정은 체덕지도 아니고 지식만 강조하는 성적 위주의 교육이다. 대학 역시 지성의 전당으로서 학문을 하는 곳이라기보다 스펙과 고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학의 인재양성은 지덕체(智德體)를 고루 갖춘 문무양도(文武兩道)의 사범인을 양성했으면 한다.

사범이란 태조 실록에 "명명행수, 도덕겸비, 가위사범(經明行修 道德兼備 可爲師範)"으로 전하는 바와 같이 '사범은 학문에 밝고 행실이 바르며, 도의와 덕성을 겸비하여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뜻한다. 사범의 경명은 빛나는 지성의 지(智)로, 행수는 심신단련인 체(體)로, 도덕겸비는 덕(德)으로 삼아 지체덕을 균형 있게 갖춘 인재를 말한다.

서울대학교는 그 동안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교육시켰으나 아직도 노벨상 수상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시대적 소명과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학벌만 좋은 천민 엘리트를 길러 내지나 않았는지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학으로 거듭 다시 태어나길 기대하면서 글을 맺는다.



이 會報는 천재교육 崔容準(數·61入) 會長의 厚誼로 費用 全額을 出捐하여 刊行된 것입니다.

청석장학회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동창회 귀속에 대하여



손은실(사회 98)
변호사

청석장학회는 저의 시아버님이 1998년 도에 만든 장학재단입니다. 시아버님은 청주 지역에서 (주)청주석회라는 상호로 석회석 광산을 3대째 운영하여 오셨는데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하여 기금재산 2억을 출자하고 청주석회에서 한자씩 따온 '청석장학회'를 만들어 지역민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청석장학회는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청주지역 중·고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2006년 시아버님 작고 후에는 저의 남편이 (주)청주석회와 청석장학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은 (주)청주석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보육원 지원, 취약계층에 쌀·연탄 지원, 초등학교 도서·컴퓨터 기부 등 기업의 사회적 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도 서울대에 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을 텐데, 이제 그 도움을 환원할 때가 되었다"며 "지역 사회 기부는 청주석회를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청석장학회는 당신 모교를 위해서 사용되면 좋겠다. 작고한 아버님도 아마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동안 교육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을 처리하는데 대학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이 기반이 되어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도움을 되돌려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렴한 등록금에 우수한 교수님들로부터

터 배울 수 있고 거기에 각종 장학제도로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큰 혜택을 받았음에도 저는 이를 특권으로 당연시하고 있었던 사실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사범대학 동창회 선배님들께 남편의 뜻을 말씀드렸고, 장학회 운영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을 것임에도 선배님들은 흔쾌히 반겨주시면서 장학회 이관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2017. 2. 장학회 이사변경이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주)청주석회 최중문대표께 감사패 전달

청석장학회는 이미 사범대학 동창회가 운영하는 청관장학회와 이름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청석장학회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후배들을 위하여 잘 사용되는 것이 시아버님의 유지를 잘 구현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큰 결정을 내려준 저의 남편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창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안내

지난 2월 1일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데스크탑과 모바일 일체형으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시면 글쓰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동문들이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도 주고 받고 소식도 전하며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여 동문간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인터넷 주소창 : <http://www.snueaa.or.kr>

▶ 회원가입방법

로그인(좌측상단) 클릭 -> 회원가입 클릭 -> 정보입력(*는 필수입력사항) 후 등록을 누른다.

가입 후 1~2월 후 동창회의 승인이 되면 준회원으로 정회원으로 변경되며 이후 홈페이지에서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제9회 청관대상 수상자

사도상 수상자 김순오(가정 55) 동문



김순오(가정 55, 전 경기여고 교장)동문은 교장으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만들기애 노력하였고 1984년 중등과 장학사로서 가정과 교과협의회를 창립하여, 교사들이 학습지도 방법 개선에 노력토록 하였다. 1984년 '서울중등가정교육' 회보를 창간하였고, 1988년에는 '가정과 교육연구'를 창간하는 등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여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였다. 1993년 여성동문의 창립멤버로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여성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하고 2001년에는 여성동문회 회보를 발간하였다.

공로상 수상자 강신주(사회 51) 동문



강신주(사회 51, (주)삼신 대표) 동문은 사범대학에서 배운 인간교육의 투철한 교육관의 소유자로서 교사시절 청년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등 젊은 시절 훌륭한 교사로서의 열정을 다하였다. 그 후 기업가로서 1975년 (주)삼신전자를 설립하여 CEO로서 탁월한 능력과 끈질긴 노력으로 기업경영을 이끌어 60여년을 경영일선에서 활동하였다. 국제로타리클럽을 통해 수십 년간 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2002년 사대동문들로부터 구성된 '청사로타리클럽'을 창립하는 데 재정적·행정적으로 크게 지원하고 청량회(사대출신 비교적계 모임) 회장으로써 활동하였다. 또한 후원에서 동창회 발전과 동문들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꾸준히 재정적 후원을 해주는 물론 바쁜 일정에도 각종 대소모임에 꼭 참석하며 동창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다.

학술상 수상자 이경배(수학 61) 동문



이경배(수학 61, 오클라호마대 교수)동문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학자로서 현대수학을 낳게 한 Hilbert 18번 문제를 일반화하여 최종 해결하는 등 위상수학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이룩하였으며 *infra nilmanifold*라는 용어를 명명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개척하였다. 또한 모교 수학교육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알찬 강의와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여 모교 수학과와 학문 연구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학술서 'Seifert Fiberings'를 Frank Raymond 교수와 공저하고 수학에서 가장 난해한 분야에 속하는 위상수학분야에서 64편의 논문을 저술하였다.

공로상 수상자 심규선(국어 76) 동문



심규선(국어 76, 동아일보 고문) 동문은 1983년 동아일보사 기자로 입사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5년간 교육담당 기자로 근무하며 짧은 교직 경험을 토대로 교육적 전문역량을 인정받은 교육전문기자이며 도교육청원과 지국장을 역임하며 현역 언론인 중 일본에 가장 조예가 깊은 기자로 평가받은 전문언론인이다. 정치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실장을 역임하였으며 사대출신 언론인 모임인 청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심 동문은 2016년 서울대학교 언론인대상, 한국참언론인대상(칼럼논평부문)을 수상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사범대학의 명예를 크게 고양하였다.

■ 2016년 제8차 청관장학회 이사회 개최(12. 7)

지난 12월 7일(수) 오전 11시 동창회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8차 청관장학회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 교육청에 제출할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동창회 찬조금으로 지정 기탁된 기금에 대한 승인을 하였다(장충식 역사51, 범은장학재단 이사장)·동문 50만원, 강신주(사회51, <주>삼신회장) 동문 50만원, 박찬구(국어56, 전 서울시교육위원) 동문 10만원, 변주선(영어60,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동문 200만원, 임향순(수학 60, 전국향우회연합회회장) 동문 20만원, <주>천재교육 회장 최용준(수학61) 300만원). 그리고, 청석장학회(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단재로 1608-13 소재)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청석장학재단은 우리 동문인 손영실(사회98, 변호사)·동문의 시부가, 시부 소유 회사 (주)청주석회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사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8년에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앞으로 동창회에서 운영하고 주로 충북출신 사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2017년 동창회 임원단 신년인사회(2.16)



동창회 임원단 신년인사회가 지난 2월 16일(목) 오후 5시 청경로 마루야브에서 열렸다. 이날 동창회 임원, 청관장학회 이사, 각과 동문회장, 청관대상운영위원, 모교 학장 등이 참석하여 2017년도 동창회 사업계획과 예산(안), 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해마다 있는 연례행사로서 우리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동문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인사를 나누고 각 학과에 동창회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로서 금년에는 특히 지난 1월 대폭 개편하여 오픈한 홈페이지를 각과 동문들에게 홍보하고 회원 가입을 권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2017년 청관대상운영회의(2.28)

지난 2월 28일(화) 오후 3시 동창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청관대상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2017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할 청관대상 후보자를 심의하였다. 심사결과 사도상은 김순오(가정 55, 전 경기여고 교장) 동문, 학술상은 이경배(수학 61, 오를라호마대학교 교수) 동문, 공로상은 강신주(사회 51, (주)삼신 대표) 동문과 심규선(국어 76, 동아일보 고문) 동문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3월 8일 수요일 정기총회와 함께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시상하였다.

■ 2017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3. 3)



지난 3월 3일(금) 11시 모교 10-1동 101호에서 2017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이날 청관장학회 임원진과 홍지준(화학 74, <주>코감 회장)·동문이 참석하였다. 장학금은 청관장학생 4명 10,834천원, 천재장학생 20명 51,790천원, 범은장학생 5명 9,998천원, 합계 72,622천원이다.

■ 2017년 청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3. 8)



지난 3월 8일(수) 오후 6시 프레지던트호텔 모차르트홀에서 청

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가 열렸다. 정원식동문(교육 48) 등 1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청관대상 사도상은 김순오(가정 55, 전 경기여고 교장)동문, 학술상은 이경배(수학 61, 오를라호마대학교 교수)동문, 공로상은 강신주(사회 51, (주)삼신 대표)동문과 심규선(국어 76, 동아일보 고문)동문이 수상하였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2016년 동창회의 활동내용과 결산(안), 201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어진 만찬에서 모교 체육과 학생들의 고전 무용과 이규백 동창회장의 색소폰동아리인 '청바지'의 색소폰 연주자 저녁만찬을 더욱 흥겹게 하여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4월 22일 개최 예정인 동문친선등반대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하였다.

2017년 동창회 이사회, 청관장학회 이사회, 청석장학회 연석회의(3.30)



지난 3월 30일(목) 11시 충정로 마루사브에서 동창회 2차 이사회, 청관장학회의 3차 이사회, 청석장학회의 1차 이사회가 열렸

다. 동창회 이사회에서는 지난 정기총회 평가, 4월 22일 열리는 등반대회 개최 준비, 2017년도 송년회 개최일자 변경에 대해 협의하였다. 제3차 청관장학회 이사회에서는 현재 바비영 2차 위탁관리업체 소송에서 승소 후 신 임대계약관리에 대한 협의, 기존 위탁관리업체가 체납한 관리비 연체에 대한 처리를 결의하였다. 제1차 청석장학회 이사회에서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 2016년도 청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할 2016년도 결산(안)과 기본재산인 정기예금 재에치 보고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청석장학회의 전 자산을 우리 동창회에 귀속해 준 (주)청주석회 최종문 대표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하였다.

공지사항

2015년 11월부터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께 감사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께는 연하장도 발송하고 있으나 회비를 납부하신 후 주소 및 연락처 확인을 위해 동창회 사무실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회부납부 동문의 연락처가 없어 감사 문자를 드리지 못한 분이 다수 있습니다.

지로용직로 납부하시는 동문님은 여백에 꼭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長 動靜 (2016. 12. 01 ~ 2017. 03. 31)

- 2016. 12. 7. 청관장학회 이사회 주관
- 12.13. 사범대학 송년의 밤 행사 참석
- 2017. 1. 6.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참석
- 2.16. 사대동창회 신년인사회 주관
- 2.28. 제9회 청관대상운영위원회 참석
- 3. 3. 사범대학 장학금 수여식 참석
- 3. 8. 제9회 청관대상 시상 및 정기총회 주관
- 3.17. 총동창회 정기총회 참석
- 3.30. 동창회 이사회, 청관장학회 이사회 주관

동창회 來訪人士 (2016. 12. 01 ~ 2017. 03. 30)

- 강의정(영어 61) 前 여의도고 교장, 본회 감사
- 강남구청교육발전자문위원

- 김범기(물리 66) 前 한국교원대 대학원장, 본회 문화전략부 부회장

- 김영애(생물 64) 前 대치중 교장, 본회 조직부 부회장
- 박성수(교육 61) 前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총장
- 변주선(영어 61) 前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본회 동창회장
- 성기훈(체육 71) 前 서울교대 교수, 체육교육과 동문회장
- 손영실(사회 98) 前호사, 청석장학회 이사
- 신정숙(화학 67) 前 세종고 교장, 본회 창조기획부 부회장
- 이규석(지학 66) 前국과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늘푸른포럼 회장

- 이병석(수학 65) 前(주) 트라이더 커뮤니케이션 대표, 본회 사업부 부회장

- 이삼선(지리 71) 前 한국산업개발(주) 대표, 본회 조직부 이사
- 이준순(국어 76) 前 서울학성교육원 원장, 본회 홍보부 부회장
- 임동호(교육 61) 前 사학연고 상무, 본회 총무부 부회장
- 전태원(체육 72) 前 모교 사범대학장, 청관장학회 이사
- 최기숙(체육 65) 前 자양고 교장, 본회 여성부 부회장
- 최안기(지리 70) 前 용산고 교장, 본회 창조기획부 이사

반지성(反知性)과 집단사고(集團思考)

김 병 헌 (국어 71)
한국관광진흥학회 회장

2016년은 국가·사회적으로 혼돈의 한 해였다. 다니엘 벨이 제안한 '지식기반 사회'인 금세기에 지식과 반지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국가사회가 혼란에 빠지면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되며, 지식인의 역할과 책임 문제로 발전한다. 지식인은 역사적으로 그 권위와 역할에서 존재감이 컸다. 지식은 학습에 의해 형성되고, 지식이 축적된 사람이 지식인이며,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현대사회에서 지식인은 갖추어진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에 의해 육성되며, 특히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양산되고 있다. 지식인이 사회적으로 존중 받는 지성인으로서의 소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이 따른다. 프랑스 지성 사르트르는 "지식인은 동 시대의 모든 갈등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고, 지식인은 억압받는 편에 설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미국의 언어학자이며 사회학자인 노암 촘스키도 지식인의 책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중요한 문제를 적합한 대중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진실을 찾아 알리는 것이라 하였다. 지식인은 사회적 견해를 밝히는 것과 도덕적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주를 충족하는 지식인은 지성인과 동의어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지성인의 기능과 역할은 어떠한가? 전후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외적으로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에 지식인의 중심체인 대학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많은 수의 학자들이



대학에서 본연의 책무를 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정치권력에 편입되거나 경제 권력인 재벌 내지 경제 단체에 참여하여 그에 적합한 논리를 개발하며 하나의 폐쇄적 이익 집단을 형성하는 데 참여해 왔다. 물론 지식인 또는 전문가로서 정·관계나 재계 및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가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역할 수행에 있어서 특히 지식인의 도덕성·윤리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많은 수의 지식인들이 기대되는 윤리성과 책무를 망각하고 반지성적 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지식인들이 특정 이익을 향유하는 폐쇄적인 집단 클러스터에 동참하며, 반지성적이며 반사회적인 행위에 동참하는 행태는 왜 발생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대학 사회와 지식인 사회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많은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권력욕과 경제적 욕구를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에 대한 국가적인 재정지원 정책과 공·사적 영역의 연구 프로젝트 등은 그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및 목적의 순수성을 떠나 운영상에 있어서 많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통한 지식인 사회의 통제와 순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 개발이 필요하며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이런 반지성 행태와 함께 매우 심각한 문제는 극단적인 독선적 사고체제이다. 내 편은 정의이며, 옳고, 다수이며; 네 편은 불의이며, 부도덕하고 소수 극



단이라는 이론법적 논리이다. 나의 선택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가장 흔한 의견이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심리학에서 허위합의효과(false consensus effect)라 부른다. 이와 유사하게 자신의 능력과 바람직한 속성보다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허위독특성효과(false uniqueness effect)라고 한다. 스탠퍼드 대학의 리로스는 실험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갈등 상황에 대한 글을 읽고 난 후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게 했다. (1)다른 사람들은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2)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3)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이나 자질은 어떠한가?를 묻는 실험이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과반이 자기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본인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자질과 특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게 묘사했다.

“나의 선택과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은 틀렸다.”는 것이 허위 합의효과이다. 허위독특성효과는 자신의 건전한 행동(예, 건강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설명에서 두드러진다. 건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수를 과소평가하며, 건전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의 수를 과대평가한다. 내(內)집단 이질성가설과 외(外)집단 동질성가설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양성은 과대평가하고, 타 집단의 다양성은 과소평가하며, 타집단

의 동질성은 과대평가하는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 허위합의 효과에 따른 편향적 사고는 사회에 영향이 매우 크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편향적 사고에 대한 사례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겪고 있는 한국의 현시대 상황에서 찾기가 쉽다. 쿠르드 레빈에 의하면 집단은 동일한 목표나 공동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모인 무리라고 정의하였다. 솔로몬 아시는 집단을 단결하게 하는 공동의 이해와는 별도로 구성원들이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순응욕구로 명명하였다. 순응은 집단응집력을 강화하는 유용한 사회적 기능으로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부정적인 기능이 문제가 된다. 응집욕구가 지나쳐 비이성적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집단사고(Group Think)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소위 보수와 진보라는 양 집단에서 보이는 인지적 편향은 매우 심각하다. 양대 진영의 가치관과 신념 내지 이해관계는 물론 문화원 집단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표현과 행태는 일반적인 건전한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바람직한 지식인,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지식인을 우리 사회는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식인의 역할과 책임 및 그 윤리성이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시 되는 해가 2017년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오랜 전통인 선비정신은 어디 있는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따뜻한 진심입니다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는 천재교육의 학습 봉사단.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려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꿈, 천재교육이 응원하겠습니다.

천재교육



◇ <꿈이 자라는 천재 수학교실>이 원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서울성모병원 어린이학교에서
주 1회 <꿈이 자라는 천재 수학교실> 수업 진행

◇ 학한 기업으로 가기 위한 동행, 천재교육이 함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습교재 지원 / 장학금 후원 /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책 데이터 지원 / 고도 악사를 위한 교과서 및 학습교재 개발

교육학과

◆ 신년교례회 개최



교육학과와 교육학과 동문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7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동문회 신년교례회”가 지난 1월 7일(토) 본교 소담마루에서 개최되었다. 매년 첫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교육학과 신년교례회는 새해를 맞아 학과의 원로교수 및 선배님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며 덕담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이다. 올해에도 여러 원로교수 및 선배님들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고, 각계 각층의 동문 및 대학원생에게 이르기까지 1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여 소식과 안부를 나누고 새해의 행복을 기원하는 즐거운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국어교육과

◆ 2016년도 해암학술상 시상식



2016년 12월 16일(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제22회 해암학술상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해암 학술상은母科 명예교수인 해암 김형규 교수 및 유족들이 조성한 해암 장학기금을 바탕으로 시상하는 학술상으로, 국어교육과 발전에 기여한 동문 소장 학자 중에서 수상자를 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학술상은 남가영(96, 아주대 교수) 동문과 김혜연(95, 동국대 교수) 동문이 공동 수상하였다.

▲ 2017년 신년하례식



2017년 국어교육과 동문회 신년하례식이 지난 1월 3일(화) 오후 3시에 서울 코리야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은전(50, 모교 명예교수) 동문을 비롯하여 총 72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여느 해보다 많은 동문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선후배 동문들의 새해 덕담을 들은 뒤 정기 총회를 진행하였고, 친교 행사에서는 여러 동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을 향해 나아간 뜻깊은 시간이었다.

▲ 2017년 1학기 동문회장급 수여식

2017년 1학기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이 3월 7일(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거행되었다.故 이응백(45) 동문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난대장학금과故 정영숙(54) 동문의 유족이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연지장학금,母科 명예교수 이신 구인환(50) 동문과 우한용(68) 동문이 각각 기탁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윤당장학금과 우공장학금, 이창득(71) 동문과 이영락(2006) 동문이 각각 기탁한 기금으로 교직을 희망하는 우수한 학부생에게 수여되는 다다장학금과 이영락장학금, ‘동문장학금’ 및母科 60돌을 맞아 전 동문들이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국어교육과 60돌 동문장학금’이 수여된 이 자리에는 수상자와 우한용 동문회장, 이창득 동문을 비롯한母科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 '17년도 상반기 언어인성포럼 개최



국어교육과 동문회에서 주관하는 ‘17년도 제1차 언어인성포럼’이 3월 16일(목) 16:00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은 ‘소통, 덕성과 기술 사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민

병곤(母科 교수)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포럼에서는 오랜 경륜을 가진 청중들과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현대 사회의 소통에 대한 필요성의 공유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4월 13일(목)에는 '인성이 실력이다! H.P.M.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17년도 제2차 언어인성포럼'이 개최되었으며, 6월 15일(목)에는 '문학 보급자의 언어'라는 주제로 정재찬(한양대 교수) 동문의 발표가 포함된 '17년도 제3차 언어인성포럼'이 예정되어 있다.

영어교육과

◆ 2017년도 신년하례회 및 총회



지난 1월 18일(수) 저녁 6시 30분 교대역 호정회관에서 영어교육과 동창회 신년하례회 및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동창회장 이재희 동문(74), 이성호(58), 황혜숙(58), 변주선(60) 동문을 포함하여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였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영어교육과에서 진행되었던 학사 보고와 함께 82학번이 출현한 동창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58학번부터 13학번까지 다양한 학번을 아울러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불어교육과

◆ 2017년 신년하례식



불어교육과 동문회(72, 회장 강충권)는 지난 1월 11일(수) 역삼역 <제우스스타>에서 새 해를 맞아 신년하례식을 개최하였다. 많은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그간의 소식과 안부를 주고받으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생물교육과

◆ 신년교래식 겸 정기총회



2017년 1월 6일 서울대 호암회관에서 정해문(58, 모교 명예교수)동문을 비롯한 은사님들과 함께 여러 동문들이 붉은 닭띠해의 의미를 나누고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신년교래식 겸 정기총회를 가졌다. 작고한 은사님에 대한 추도 묵념으로 시작하여 동문회장의 인사와 단배가 있었다. 이어서 생물교육과 현황 보고, 학부 생활 및 동아리 소개, 동문회 발전 기금 전달, 덕담 및 간배 제의, 식사 및 친교의 시간을 가지며 생물교육과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체육교육과

◆ 2017년 서울대학교 체육회 테니스대회



지난 4월 15일(토), 체육교육과 동문회인 체육회 주체로 '2017년 서울대학교 체육회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는 체육교육과를 졸업한 3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하였으며, 테니스대회 이후 동문들은 저녁식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청관대상 공로상 수상 소감



심 규 선 (국어 76)
동아일보 고문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가 물으십니다.
“아범아, 오늘은 웬일로 베타이까지 됐나. 뭐, 좋은 일
이라도 있나?”

“그냥요” 하고 나오려다, 작은 목소리로

“제가 오늘 상 받을 일이 있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래, 무슨 상
을?”하고 물으십니다.

“제가 사범대를 나왔잖아요. 동창회에서 상을 준답니
다.”

“상? 너는 학교 선생도 안했는데 뭐 잘 했다고 상까
지 준다냐?”

“그래서 선생님한테 주는 상은 못 받고 공로상을 받
습니다.”

“공로상? 네가 뭐 공을 세웠는데?” 하시다가,

“아무튼 축하한다. 상 준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꼭
하고”라며 말을 돌리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는 저의 ‘공로’를 의심하는 눈치였습
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효
자는 못 되고 같이 사는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어 본 대화
입니다. 그럼, 전화로라도 오늘 상 받는 것을 알려드렸
느냐고요? 그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글
쎄요, 딱히 대답할 말이 없네요.

군대를 제대하고 82년 여름에 중학교 국어교사로 발령
을 받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칼퇴근을 했습니다. 어
머니는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83년 겨
울, 기자가 되면서 제 생활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습
니다. 그때까지 소주 한 잔 못하던 제가 매일 매일 ‘육지
에 사는 고래’가 되어 몸도 가누지 못하고 새벽에야 집으
로 돌아왔습니다. 눈매가 무서워졌다거나 말투가 거칠어

졌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루는 번기통을 잡고 토
하는 제 등짝을 두들겨주시며, 아니 때리시며, 어머니는
울먹었습니다. “아니, 좋은 직업 때려치우고 도대체 이
게 뭐하는 것이여?”

그리고 보니 기자생활을 34년이나 했는데도, 이 시대
에 기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아들이 그 직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어머니와 깊은 얘기를 나눈 적이 없
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의 최고의 우군이었으니까요.

이번 토요일이 어머니의 82번째 생일입니다. 그때 오
늘 상 받는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머니, 제가 사
범대를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동창회에서 상을 받
았습니다.”

“상? 너는 학교 선생도 안했는데 뭐 잘 했다고 상까
지 준다냐?”

“그래서 선생님한테 주는 상은 못 받고 공로상을 받
았습니다.”

“공로상? 네가 뭐 공을 세웠는데?”

“좋은 직업을 때려치운 게 꽤썸했는데, 기자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 뒤늦게나마 용서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나, 축하한다. 근데 그런 좋은 일을 왜 이제야 말
한다냐?”

아차, 그 질문은 예상을 못했는데...

“아, 상장에 뭐라고 쓰여 있을지 몰라서, 그걸 보고 말
씀드리려고 그런 거죠.”

기자생활을 하면서 ‘잔머리’만 는 것은 아닌지, 저 자
신도 가끔 의심을 해봅니다. 다만, 나 같은 사람이 성스
러운 교단을 떠난 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었다고 자위하
면서 말입니다.

■ 사범대학 송년의 밤 개최



지난 12월 1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사범대학 송년의 밤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학교육과 이태령 명예교수가 자랑스러운 서울사대인상을 수상하였으며, 관악구 관사장 학회 이기례 회장이 서울사대 발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부설학교 우수교사상 4명에게도 기념패와 부상이 수여되었다.



■ 청관, 범은, 천재교육, 관사 장학금 수여식



지난 3월 3일(금) 교육정보관 101호에서 2017학년도 1학기 청관, 범은, 천재교육, 관사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학장단 및 학과장, 동창회 임원, 관사장학회 회원, 장학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 사범대학 신년교례회



지난 1월 2일 76동 두레미담 식당에서 사범대학 신년교례회가 열렸다. 학장단, 교수, 직원 1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신년교례회는 새해를 맞아 구성원간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새해의 행복을 기원하는 즐거운 만남의 장이었다.

■ 2017년 전국 국·공립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 협의회



지난 3월 24일(금)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2017년 전국 국·공립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 협의회가 열렸다. 김찬중 사범대학장(제 16대 전국 국·공립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자유학기제와 교육봉사를 주제로 교육부 송교준연구관의 발표가 있었으며, 회의안전인 공동 연구과제 결과보고, 국회포럼 개최등을 논의하였다.

■ 2016학년도 동계 교수학사협의회

지난 2월 23일(목) 서울대학교 글로벌 교육공학센터 다목적홀에서 동계 교수학사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학장단 및 교수 70여 명이 참석하여 학장단 보고 및 부설 연구소 보고 등 전년도 업무실적 보고와 사범대학 업무계획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국립대 총장: 선출 또는 임명?

이 재 회 (영어 74)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영어과 동문회장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 선거 등에서는 선거일 개표 직후 선거관리위원회가 1위 득표자에게 곧바로 당선증을 교부한다. 만약 선관위가 이유도 밝히지 않고 2위 득표자에게 당선증을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의 국립대 총장 임용과정을 보면서 해본 발칙한 상상이다.

대학총장 선출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는 혼탁한 학내정치와 줄세우기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국공립대에서는 대학의 규모에 따라 교내의 총장추천위원 20~50명이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대 총장 임용은 대학이 1, 2순위를 정하여 교육부에 추천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장관이 1인의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총장공모제가 도입된 후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1, 2순위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실상 청와대의 검중에 따라 2위 후보자가 임명된 사례가 5건이나 된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2순위 후보자가 임명된 사례가 없다. 또한 뚜렷하게 이유도 밝히지 않으면서 교육부가 임명 제정을 보류하고 있는 사례가 3건이 발생했다. 오랜 인내 끝에 이들 8개 국립대학 총장 1순위 후보자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에 소송장을 제출하



고, 경북대 1순위 총장후보인 김사열 교수는 법원에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총장임용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립대 총장은 비록 대학에서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순위를 정해 1순위 후보

자 임명을 요구하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교육부에서는 총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할 때 '순위를 명시하지 말라'고 한다. 공모제 선거에서는 총장추천위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선출과정이 끝나는 즉시 1, 2순위 후보자가 알려진다. 또한 순위를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천서류 내용을 보면 순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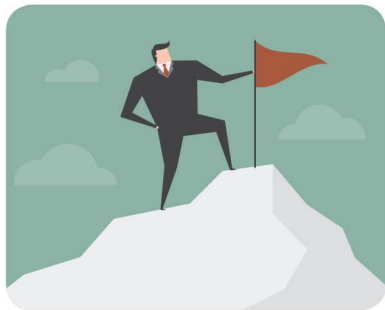
국립대 총장도 정부직이지만 일반선출 정부직과 다른 점은, 국립대 총장은 공모에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대학이 '후보자'를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다른 정부직은 임후보자들 중에서 '당선자'가 선출되는 것이다. 그래도 1위 득표자를 가리는 선거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국립대 총장 선거가 직선제이거나 간선제(공모제)이든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총장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순위 후보자가 임명된 대학에서는 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나마 임명되지 않아서 총장직무대리가 지휘

하는 대학에서는 대내외적 행정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총장후보자의 요건이나 제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립대 총장 후보자로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것을 우려한다면 교육공무원임용령과 대학의 학칙에 총장후보의 조건이나 결격 조건을 명시하면 된다. 이처럼 사전에 요건을 공개하면 부적합자가 임후보하는 것을 예방하고, 임용되지 못한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임명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총장후보자들에 대하여 소위 '4대 불가 지침' 위반 이외에 사생활이나 과거 전력 등에 대한 소문만 생산되고 있다.

(서울사대 동창회보 192호, 2017.5)



■ 서울시교육청 이동 (가나다 순)

강성철(체육 82) 고척중 교장
공준성(체육 82) 창동중 교감
곽향란(생물 82) 태릉고 교감
기세훈(사회 76) 신동중 교장
길산석(교육 79) 여의도여고 교장
김명규(윤리 82) 본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김선관(체육 87) 방학중 교장
김선주(물리 76) 과학전시관 관장
김수득(체육 75)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승겸(체육 86) 삼성고 교감
김승철(물리 76) 신구중 교장
김승철(생물 76) 선유중 교감
김양수(역사 83) 보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김영선(국어 87) 당곡고 교감
김영화(화학 83) 세종파학교 교감
김윤경(생물 80) 상현중 교장
김은주(물리 91) 중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일원(지리 76) 노원중 교장
김정여(수학 74) 서일중 교감
김경화(수학 88)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찬우(체육 92)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김허중(체육 88) 동작고 교감
남현우(물리 85) 창동고 교감
박명숙(윤리 82) 개원중 교감
박선희(지리 87)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박수봉(사회 82) 신림고 교감
박인규(교육 78) 서초고 교장
박창배(국어 86) 본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변영수(체육 87) 교육부
송길성(체육 84) 본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송현미(생물 87)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장학사
송형세(지리 80) 천왕중 교장
신범영(수학 80) 금호고 교감
신현구(체육 88) 본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심재현(물리 83) 공평고 교감

심중섭(화학 79) 당곡고 교장
안경화(영어 86)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장학사
안성은(영어 87) 국립국제교육원
안재민(지리 80)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안재홍(체육 78) 본청 체육건강과 과장
양영희(영어 83) 수도여고 교감
우한정(체육 81) 성서중 교장
유양옥(체육 75) 개봉중 교장
윤석주(생물 88) 당산중 교장
윤신덕(역사 82) 연신중 교장
이경률(불어 77) 신원고 교감
이경임(체육 75) 구일고 교장
이경희(체육 83) 태봉중 교장
이수형(물리 81) 본청 교육혁신과 장학관
이용수(수학 76) 오중중 교장
이진영(체육 82)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이희세(국어 76) 구로고 교장
임용우(생물 77) 한성파학교 교장
임유원(수학 84) 청담중 교감
정춘면(역사 80) 개봉중 교감
정태호(화학 76) 월계중 교장
정호남(지리 78) 영등포중 교장
조기식(윤리 89) 본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조상주(국어 84) 정동고 교감
조은경(생물 87)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장학사
조현준(체육 83) 청담고 교감
주석표(지리 83) 용산고 교감
진성룡(체육 80) 세원고 교장
최경래(생물 86) 상계고 교감
최후남(화학 82)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한명선(체육 84) 학생체육관 교육연구사
한중근(체육 86) 용곡중 교감
허현정(사회 88) 본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홍순옥(윤리 82)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황세호(수학 80) 가락고 교감
경기교육청
이병호(영어 70) 경기외고 교장

2017년 송년회 개최 일자 변경안내

- 일 시 : 2017년 11월 24일(금) 오후 6시
11월 8일(금)에서 11월 24일(금)로 변경합니다
-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시청 앞) 31층 모짜르트홀
- 회 비 : 30,000원
- 신 청 : 11월 18일까지
TEL., (02)720-8116 / 8120 Fax, (02)720-8117

- ※ 1.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 만찬과 여흥·게임·푸진한 경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꿈 너머 꿈, 잊었던 사명 앞에 서다

이 현 정 (국어 2009)

서울사대부설중학교 교사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옛말에도 ‘삼세번에 득한다.’고 했고 도원결의의 주인공들처럼 사람도 셋만 모이면 큰 힘과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 세 번째 꿈을 이루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의 정규 교원으로 선발된 것입니다. 제 첫 번째 꿈은 존경하는 은사님을 좇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 공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사범대학 부설학교에서 교사로서의 경력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설학교에 뿌리박을 가족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서른을 앞두고 세 번째 꿈까지 모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부설고등학교에서의 교생실습과 3년의 부설여중 경력을 거쳐 부설중학교로 발령받아, 세 학교를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청춘의 중요한 매듭 하나를 지었다 여기며 마냥 행복한 겨울방학을 보내고 봄방학을 맞았습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던 중에, 문득 제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목표들 뒤에 감추어진 진짜 의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장에서 “왜 이렇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좋아하냐?”라는 질문 앞에 곧바로 명쾌한 답을 내놓기 어려웠습니다. 공교육을 선도하는 최고의 위상, 훌륭하신 선배님과 교수님, 세계 제일의 한국어교육 연구기관……. 여러 모범답안이 떠올랐지만 언제부터인가 제게는 ‘그냥’ ‘당연한’ 목표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순간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13여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깊고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여겨왔지만, 세상 그 고민이 충분치 못하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쌓아 둔 교실의 짐을 치우며 요즘 유행하는 ‘시간 여행’ 콘셉트처럼 흘러온 제 삶을 거슬러 오르고 올라 꿈의 원천지까지 가 닿아 보기



로 했습니다. 지난 3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생각하고 느꼈던 바를 돌아보는 지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 꿈을 꾸게 된 것은 첫째, 둘째 꿈이 달콤해서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물론 완벽하지 못했고, 험겨운 나날도 있었지만 부설여중의 3년은 제 인생의 화양연화(花樣年華)였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다 생각하면서도 한편 공교육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던 제게 부설학교에서의 경험은 놀라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합리적이고 엄격하면서도 따뜻하고 배려가 넘치는 학교는 교사와 학생, 교생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학교를 꿈꾸었는지 돌이켜 보았습니다. 50명이 한 방을 쓰는 군대 체제의 기숙고교에 살던 시절, 공부도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어 무너질 때마다 저를 구원한 것은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어린 눈빛, 열정적인 문학 수업, 엄강을 주는 시 한 구절과 같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별로 재미없고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학이 목표라고는 하지만 그 자체로 가슴 뛰는 꿈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두근거리며 좋아하는 선생님 자리에 몰래 꽃을 가져다 놓으면서, 미약하지만 나도 언젠가 그러한 빛이 되어 내가 진 빛을 갖고, 학교 자체를 지금보다 더 빛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그런 다짐을 몰래몰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꿈의 이유이자 근원이었던 셈입니다.

운이 좋아 무리 없이 지내는 편인 제 주제에도, 삶의 명분을 찾기 전까지의 고교 생활은 암흑과 같았습니다. 분명한 꿈을 지니게 된 후로 책상 앞에 등불처럼 걸어 두곤 하던 오프라 윈프리의 명언을 다시 꺼내어 봅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어쩌면 한 동안 제가 있고 지냈던 '꿈 너머 꿈'은 더 나은 교육, 내가 학생시절에 꿈꾸던 학교를 만들겠다는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치기어린 욕심에 거창하게 마음 먹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꿈이 또 다른 꿈을 낳아 어느새 여기까지 와 닿았습니다. 다시 시작점에 서서 두렵고 버거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교사이고 싶은지 생각해 봅니다. '실력과 매력과 박력' 넘치는 역할모델이자 '눈치와 엄치와 재치'를 가진 동료이고 싶습니다. 나아가 다가올 생의 모

든 과정을 주어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어지거나 오만해지려 할 때면 시 한편 외며 초심을 다잡아 보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너도 나도 서로 울듯 꽃피고 물들어가며 꿈 너머 꿈을 바라 볼, 2017년의 아름다운 계절들을 온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 동 문 동 정 ■



정인석(교육 51, 전 명지대 사회교육 대학원장) 동문

동문이 상담심리 조연서로 10 번째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유진 켈러의 포커싱기법을 통해 사람마다 다른 내면의 감정흐름을 발견하고 안내해주며 이를 통해 내면의 언어와 이미지가 상징화되며 긍정적인 인성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몸으로 느끼지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초점을 통해 독자에게 의미있는 감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 고문은 현재 한국트랜스퍼스널 학회 고문으로 있다.



이동호(교육 56, 전 교육부 장관, 모교 명예교수) 동문이 지난 12월 1일 김포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동문은 제42대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했으며, 대통령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과 한국교육개발원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또한 모교 사범대학장과 민족사관고등학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재임중이다.



임철일(교육 82, 모교 교육학과 교수) 동문

동문이 지난 1월 1일 임기2년의 한국교육공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85년 창립된 한국교육공학회는 국내 교육공학 관련 학문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학문공

동체다. 교육공학자, 교육학자 및 교사, 교육기관 종사자 등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박갑수(국어 55, 모교 명예교수) 동문

이 <국어순화와 법률 문장의 순화>를 출간하였다. 책의 제1부는 '국어순화의 방법과 실제', 제2부는 '언론과 문학에서의 국어순화', 제3부는 '법률 용어와 문장의 순화', 제4부는 '민사소송법과 문장의 순화'로 이

루어져 있다.



한정식(국어 59, 중앙대 명예교수)

동문이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의 일환으로 사진전을 4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개최한다. 한정식 동문은 리얼리즘 사진이 주를 이루던 1960년대부터 사진 자체의 방법론을 중시하는 '사진의 형식주의'를 수용하여 한국 예술사진의 미학적 범주를 확장시켜왔다. 이번 전시는 한정식 동문의 반세기 가까이 작품세계를 한국현대사진의 발전과 더불어 살펴보고, 한국 사진이 가지는 고유한 사진미학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주행(국어 63, 중앙대 명예교수) 동문이 지난 1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외국



2014 메디컬코리아 5년연속 대상
갑상선센터 부문 선정

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

김성원 의무원장 취임 (전)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석사·박사 취득

(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 부교수
유방건강재단 이사
한국유방암학회 홍보이사
대한의학유전학회 유전상담위원회 위원장
한국인유전성유방암 연구 총괄책임 연구자
GBCC 홍보위원장



진료분야

유방암 클리닉, 유방암의 외과적 치료,
유전성 유방암 클리닉



의무원장, 유방센터장
김 성 원

우리나라 갑상선질환 치료를 선도해 온 대림성모병원 갑상선센터가
최근 여성의 주요 발생암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 갑상선암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위하여 새롭게 최고의 유방외과 전문의를 주축으로
유방 갑상선센터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유방센터 예약 1899-4361 / 코디네이터 문윤순 (02) 829-9355